

1920~30년대 한국교회의 사회복음 수용과 사회윤리에 관한 연구

김권정(송실대학교 겸임교수)

I. 머리말

II. 한국교회의 사회윤리적 표준 모색

1. 3·1운동 이후 비판여론과 반기독교운동
2. 사회윤리적 표준 논의와 사회복음 대두
3. 예루살렘 국제선교대회와 기독교의 사회화 문제

III. 한국교회의 사회복음 실천과 사회윤리 확립

1. 기독교신우회 선언과 사회복음 실천론
2. 조선예수교연합공의회의 사회신조
3. 1930년대 사회복음의 실천적 흐름

IV. 맺음말

• ABSTRACT •

This thesis shall look into how Korean churches have dealt with and overcome the situation of 1920's~1930's in a socioethical point of view. Since the March 1st movement, the status of christianity in Korea which was considered as a pioneer of western civilization began to shake. Most of all, the indifference toward social problems of churches and anti-christianity movement of socialists caused a great deal of shock to Korean churches. To deal with these problems, Korean churches had tried prepare a social standard above all things.

In Korean churches, the controversy of trying to prepare a definite social standard got into stride in the mid 1920's. The 'Social Gospel' which is called social gospel doctrine and christian socialism were accepted as the social ideology of christianity. The thing which had influenced the controversy of preparing socioethical standard was the 'International Missionary Council of Jerusalem' (1928). The socialization issue of christianity raised at this time became the opportunity for Korean churches to prepare a socioethical standard. The effort of christian community in trying to prepare a socioethical standard has proclaimed the christian group of faithful friends right after the International Missionary Council of Jerusalem and the Social Creed(1932) has expressed the position of christian churches on specific social problems to prepare a socioethical basis for all Korean churches to participate individually. Based on these, the current of various social gospel has been developed.

Key Words: Social Gospel, social standard, Social Creed, christian socialism

I. 머리말

이 땅에 세워진 교회의 성장은 세계선교 역사상 유례가 없다고 평가되며 세계교회를 놀라게 했다. 그러나 급성장에는 어쩔 수 없이 따르는 부작용이 있기 마련이다. 1970·80년대 급속한 성장과 더불어 부정적인 현상이 표면화되기 시작했다. 1990년대에 들어서는 교세 정체현상이 나타나더니 최근에는 감소현상까지 보이고 있다. 많은 원인이 있을 수 있으나, 오늘 한국교회가 사회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원인임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한국교회가 사회적이며 윤리적인 차원에서 그 책임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깊은 관계가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이를 두고 우리는 한국기독교의 미래를 부정적으로만 볼 수 없다. 왜냐하면 기독교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위기가 아닌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위기적 상황 속에서도 기독교는 늘 역사와 시대 속에 새 방향을 설정하고 개척해 왔기 때문이다. 오늘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도약하기 위해서는 사회윤리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관점과 방향에 대한 분명한 재확립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역사적 방법을 그 기초로 삼고 사회윤리 인식의 변화흐름을 1920~30년대 한국교회의 상황 속에서 추적했다. 이는 한국 윤리학 연구에서 윤리사상사를 소홀히 다루기 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제기되는 제반 윤리적 문제들의 역사적 뿌리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것들에 대한 올바른 대담도 얻기 쉽지 않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다. 즉 ‘역사적 지식’ 없이는 그 어떤 분야에 대해서도 올바른 인식에 도달하기는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1920~30년대 한국교회가 위기적 상황 속에서 직면

한 사회적 문제들을 어떻게 사회윤리적 차원에서 대응하고 극복해 나갔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당시 한국교회는 급격한 사회변동 속에서 한국 사회의 비판여론에 직면하고 있었으나, 오히려 이를 자기성찰의 기회로 삼았고, ‘사회복음’(社會福音) 사조(思潮)의 수용을 통해 사회적 표준을 마련함으로써 시대 속의 방향성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이런 1920~30년대 한국교회의 모습은 식민지 현실에 대한 직시와 사회적 실천을 펼치는 배경이 되었다는 점에서 오늘날 한국교회의 나아갈 방향 설정에 사회적이며 윤리적인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II. 한국교회의 사회윤리적 표준 모색

1. 3·1운동 이후 비판여론과 반기독교운동

3·1운동이후 서구문물의 선구자로 자처하던 한국기독교의 지위가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먼저 한국사회 속에서 확고한 기반이 되었던 기독교계의 교육과 의료 분야에서 기독교계 보다 나은 설비를 갖춘 일제 식민지의 공립학교와 병원들이 속속 출현하였다. 이는 더 이상 한국교회가 사회 속에서 근대화의 주도적 위치를 차지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식민권력과의 경쟁에서 뒤떨어지고, 심지어는 일반 한국인들이 세운 학교나 병원에도 밀리는 현상이 일어났던 것이다. 여기에 기쁨을 끼얹은 것은 일반 사회의 큰 기대와 달리 교회가 사회문제에 대해 관심이 별로 없고 목사가 무식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는 비판의 고조였다.¹⁾

1) 이에 대한 참조의 글은 강명숙, 「1920년대 초 한국 개신교에 대한 사회의 비판」,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한국기독교와 역사』 제5호, 1996, 52~77.

다음은 기독교의 개혁과 사회참여를 요구하는 일반여론의 비판적 태도를 잘 보여준다.)²⁾

諸君아 世界를 動하라 天地를 動하라 社會를 根本으로 革新하고 人生의 모든 不義에 斧鐵을 加하라. 基督은 何를 言하였는고 「눈먼 者를 보게 하고 눈 뜬 者를 멀게 하라 왔도다」하지 하였는가. 此는 價値標準의 顛倒를 意味함 이라.…… 然則 諸君은 賤하거나 貧하거나 貴하거나 富하거나를 勿論하고 「참사람」에 依支하여 尊貴를 判斷하며 「참사람」의 威嚴을 犯하고 「참사람」의 發展을 妨害하고 「참사람」의 幸福을 剝奪하는 모든 制度와 傳習에 對하여 反抗聲을 大學할지이다.…… 아! 實로 諸君은 祈禱를 諸君의 行動으로써 하며 吾人의 生身으로써 할지이다. 諸君은 敎壇을 下하여 街道에 出하라 不義에, 暴惡에 泣하는 民衆 곳 참 人子를 위하여 生命의 火를 投하고 審判의 火를 擧하라.

일반언론은 교회의 지적소외, 발전된 과학과 새로운 사상의 경시풍조 등을 비판하며, 기독교인들의 적극적인 사회문제에 대한 책임의식과 참여를 촉구하였다. 내세주의적 신비주의 신앙과 선교사들의 친일화 경향을 비판하였다. 이를 통해 기독교는 열악한 사회적 현실에 무관심한 채 탈사회적·몰역사적으로 나가고 있다는 비판을 정면으로 받고 있었다.)³⁾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사회주의사상이 청년지식인층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어 가면서 반기독교운동이 대두하였다. 사회운동세력으로 자리잡기 시작한 사회주의자들이 ‘기독교’를 지목하여 배척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한 것이다.)⁴⁾ 사회주의사상은 일제의 식민지 통치정책의 변화와 더불어 일본·중국·러시아로부터 국내로 들어와 한국의 지식인들에게 빠르게

2) 社說, 「宗敎家여 街道에 出하라」, 東亞日報, 1922년 1월 7일자.

3) 堅志洞人, 「예루살렘의 朝鮮을 바라보면서」, 『開闢』 2005년 7월호, 55-61.

4) 김권정, 「일제하 사회주의자들의 반기독교운동」, 『崇實史學』 제10집, 1997, 205-214.

확산되었다. 이 과정에서 사회주의자들은 ‘유물론’과 ‘무신론’에 입각하여 종교를 배척 대상으로 규정한 ‘반종교의 논리’도 그들의 세계관 및 가치관으로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1923년 3월에 일어난 중국의 반기독교운동이 국내 일반 언론매체의 언론에 소개되었다.⁵⁾ 이는 중국혁명에 관심을 갖고 있던 국내 지식인층에 반기독교적 분위기가 형성되는 원인을 제공하였다. 이와 함께 1923년에 개최된 사회주의세력이 주도한 청년당대회에서는 민족주의진영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종교는 미신과 허위’라는 반종교 강령⁶⁾을 채택하고 국내에서의 반종교운동(反宗教運動)을 공식화하였다. 이들은 반종교 논리를 토대로 하여 1925년부터 기독교를 “제국주의 수족(手足)”, “자본주의 주구(走狗)”, “양이양심(羊而狼心)의 기독교” 등으로 주장하거나⁷⁾ 성탄절을 ‘반기독교데이’⁸⁾로 정하는가 하면 김익두 목사와 같은 부흥사들을 ‘고등무당’⁹⁾이라고 비판하면서 반기독교운동을 전개하였다.¹⁰⁾

그런데 기독교계에 보다 큰 위기감을 던진 것은 반기독교운동에 ‘거개가 교회출신인 이전의 신자들’¹¹⁾이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그동안 사회 영역, 특히 교육·의료 등을 통해 근대적 문화의 선도자로 자처하던 기독교였다. 이 시기에 와서 기독교가 사회문제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목사가 무식하여 현실의 사상과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보수적이

5) 社說, ‘中國의 非宗教同盟運動’, 東亞日報, 1922년 3월 29일자·4월 12일자; 林 柱, ‘中國非宗教運動의 現像과 그 原因’, 『開闢』 1922년 6월호, 51~53; 鄭 栢, ‘中國의 非宗教運動의 由來와 傾向’, 『新生活』 1922년 7월호, 61~67; 金 星, ‘非基督教大同盟 宣言—資本帝國主義가 基督教을 保留하는 그 裏面’, 『開闢』 1924년 10월호, 56~58.

6) 李 江, ‘朝鮮青年運動史의 考察(中)’, 『現代評論』 1927년 10월호, 20.

7) 東亞日報, 1925년 10월 25일자.

8) 東亞日報, 1926년 1월 5일자.

9) ‘金益斗迷妄聲討演說’, 東亞日報, 1926년 5월 21일자.

10) 김권정, 앞의 글, 34~51.

11) 李敬道, ‘朝鮮教會衰退의 原因’, 基督申報, 1928년 4월 4일자.

며 ‘영혼구령’차원에 머무르고 있다는 대내외의 비판에 직면해야 했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기독교의 경직된 제도나 조직에 대해 냉소적인 태도를 지닌 기독교청년들에게 사회적 변혁을 주장하는 사회주의사상이 퍼져나갔다. 기독교청년들은 더 이상 교회를 옹호하기 보다 사회윤리를 외면한 채 개인윤리에 머물러 있는 교회를 비난하기 시작하였다. 급기야 기독교회 내에서 예배 도중에 목사를 비방하거나¹²⁾ 기독교청년·전도사 등이 사회주의를 지지·주장함으로써 교회에서 쫓겨나는 일¹³⁾ 등이 발생하였다.

당시 기독교계로서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무신론’과 ‘유물론’을 토대로 하는 사회주의에 기독교청년들이 몰들어가고 급기야는 교회내의 기성세대의 기독교인들과 교회를 비판하는 일들이 발생하였던 것이다. 이런 위기적 맥락에서 한국교회에는 ‘기독교인의 삶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혹은 ‘기독교인의 행위는 어떤 것이며 그 근거가 무엇이어야 하는가?’라는 측면에서 동요하는 한국교회의 구성원들이 따를 수 있는 새로운 ‘사회윤리적 표준’(社會倫理的 標準)을 마련하지는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2. 사회윤리적 표준 논의와 사회복음 대두

3·1운동 실패의 좌절감 속에서 한국사회에는 ‘문화정치’라는 식민지배체제의 변화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에 대한 반성으로 우승열패(優勝劣敗)·적자생존(適者生存)의 세계가 아니라 정의인도(正義人道)의 사회로 바꾸자는 개조론이 큰 영향을 미쳤다.¹⁴⁾ 이런 변화는 한국교회에도 나타났다. 세계와 사회의 변화의 시대에 한국교회에도 여기에 적극 동참

12) 墨峯, 反宗教運動과 이에 對한 基督敎會의 態度를 回顧하는 나의 所見, 『青年』 1927년 7월호.

13) 『平壤의 社會運動』, 『開闢』 1924년 9월호, 64.

14) 박찬승, 『한국근대정치사상연구』(서울: 역사비평사, 1992), 243.

해야 한다는 ‘사회개조적’ 신앙관이 3·1운동 직후 주장되기 시작하였다.

예컨대, 당시 기독교계의 저명한 인사인 이상재는 약육강식(弱肉強食)을 정당화는 사회진화론적인 사회현상이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죄악 상태를 지적하였다. 이런 불합리한 사회현실 개조가 하나님의 뜻이며, 사회개조 활동에 기독교인들이 신앙인으로서 책임의식을 갖고 적극 나서야 함을 역설하였다.¹⁵⁾ 개인의 내세신앙을 강조하며 개인윤리를 강조하는 ‘개인구원’에서 벗어난 사회개조적 신앙관은 현실의 문제를 적극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윤리를 주장하는 ‘사회구원’의 의미를 잘 보여주었다.

이것은 3·1운동 이후 한국교회의 사회적 태도와도 많은 관계가 있었다. 3·1운동 과정에서 큰 피해를 당했던 기독교회는 이후 권력이나 부를 소유하고 도시에 거주하는 중산층 평신도들이 요구하는 ‘영혼의 위로’에 응하게 되었으며, 이런 종교적 행위를 통해 식민지적 현실에 안주하여 왔던 것이다.¹⁶⁾ 기독교회가 사람들에게 정신과 물질의 분리를 강조하면서 세상과 물질을 부정하고 죽은 뒤의 천당만 생각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이 세상의 현실로부터 유리시키는 ‘시대착오적’ 발상을 보였다는데 문제가 있었다.

그런데 1923년경 사회주의자들의 반종교운동이 일어나자, 기독교계에는 원론적인 성격이 강한 사회개조적 신앙관에서 벗어나면서 기독교의 구체적인 사회윤리 표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대응 논의가 본격적으로 일어났다. 이 논의들은 기존의 제도권교회를 비판적으로 인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기초하여 사회를 개조하는 일에 기독교회가 적극 나서 설 것을 촉구하였다. 더불어 기독교와 사회주의가 적극 힘을 합해 사회개조에 나설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15) 李商在, 「上帝의 뜻은 여하나노」, 『百牧講演』 2(경성: 博文書館, 1921), 138.

16) 박정신, 「1920년대 개신교 지도층과 민족주의운동」, 『근대한국과 기독교』(서울: 민영사, 1997), 75~83.

당시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자본주의와의 친화성을 비판적으로 지적하며, 사회윤리적 차원에서 자본주의에 대해 매우 비판적 태도를 취했다. 이들은 자본주의가 반기독교적이며 인간성을 해치며, 노동자 농민을 착취하고, 속성상 판매경쟁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제국주의화 되어 전쟁을 일으켜 세계평화를 파괴한다고 주장했다.¹⁷⁾ 자본가와 자본주의체제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비판은 사회적 측면에서 사회주의자들로 공격받던 취약한 부분에 대한 일정한 대응양상의 의미를 갖고 있었다.

이 시기에는 기독교와 사회주의의 관계를 주목하고 이를 긍정적으로 주장한 이는 YMCA의 학생부 간사였던 이대위였다.¹⁸⁾ 그는 당시 사상적 동향의 큰 축을 기독교와 사회주의로 인식하고 기독교와 사회주의의 연대를 강력히 주장했다. 그는 “기독교 천국이 보편적 우애를 실현하는 것이라면 사회주의도 종교에 인간을 사랑하는 정신에 귀착”된다고 규정하고, 양자가 지향하는 정신과 목적이 동일한 것이라고 역설하였다.¹⁹⁾ 즉, 불만불평한 세계를 부인하고 신세계를 조성하고자 함에 기독교사상과 사회주의가 ‘상동(相同)’함이 있으며, 그 근거로 양자가 현 사회의 제반폐해를 알고 이를 개조하려고 목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분위기 속에서 기독교계의 대표적 언론매체였던 기독교신보(基督申報)의 ‘사설(社說)’에는 “…… 眞正한 社會主義는 참말 敎會로 더불어 서로 背馳되는 것이 적고 敎회를 위하여 준비하는 것이라. 만일 진정한 사회주의가 있으면 비록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나는 그를 기독교인과 同一히 간주하겠다. 저는 그 主義를 確知하고 實行하는 者이다.”²⁰⁾라는 주장

17) 김권정, 「1920~30년대 기독교인들의 사회주의 인식」, 『한국기독교와 역사』 제5호, 1996, 89~90.

18) 이대위의 생애와 활동에 대해서는 채현석, 「이대위의 생애와 활동」, 『일제하 한국기독교와 사회주의』(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2)를 참조할 것.

19)李大偉, 「社會主義와 基督教 思想」, 『靑年』 1923년 5월호, 9.

20) 社說, ‘基督教會와 社會’, 基督申報, 1924년 10월 15일자.

이 게재되었다. 이는 기독교인들이 사회주의 수단이나 건설 방법의 측면이 아니라 사회적이며 윤리적인 측면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이해하려는 의도를 잘 보여준다.

그러나 1925년 무렵부터 물리적 수단이 동반된 반기독교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기독교계의 논의는 기독교 나름의 새로운 사회적 질서와 가치를 구체적으로 모색 및 실천하는 방향으로 옮겨졌다. 그 과정에서 기독교계에는 적극적인 사회개혁 및 개조를 통해 사회를 복음화시키며 구원하고자 하는 ‘사회복음’(社會福音) 사조로, 기독교사회주의 및 사회복음주의가 본격적으로 대두하기 시작하였다.

중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 유학을 마치고 입국한 기독교청년지식인들과 국내에서 번역된 서적들을 통해 사회복음 사조가 수용되었다. 1920년대 중반 본격 수용되기 시작한 한국의 기독교사회사상은 중국과 일본에서는 強者道德에 대한 부정과 영국의 킹슬레이·모리스·러스킨 등이 제창한 영국의 基督教社會主義와 톨스토이의 박애주의와 크로포트킨의 상호부조론, 賀川豊彦의 그리스도적 愛에 기초한 基督教社會主義 등이 소개되었고, 미국에서는 미국 라우센부쉬가 주장한 社會福音主義가 수용되었다. 이들 사회복음사상은 서구의 非맑스적 사회주의 전통에 그 사상적 기반을 두고 있었다.²¹⁾

사회주의세력의 공격에 수세적 입장에 머물러 있던 기독교계에서는 1925년부터 ‘애(愛)’의 원리에 입각한 기독교의 새로운 사회건설이라는 ‘사회복음’의 방향이 제기되었다. 특히 여기에는 무신론과 유물론의 무장한 맑스주의와 뚜렷이 구별되는 유물적 도덕사관을 내세우며 ‘애(愛)의 사회주의운동’²²⁾을 제창한 일본의 기독교사회주의자 가가와(賀川豊彦)의

21) 장규식, 「신간회운동기 기독교의 사회운동론의 대두와 기독교신우회」, 한국근현대사학회, 『한국근현대사연구』 16, 2001, 78-84.

22) 賀川豊彦 著·赤城學人 譯, ‘基督教社會主義論(結)’, 基督申報, 1927년 5월 25일자.

글이 큰 계기가 되었다. ‘인류의 進化가 生存競爭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愛에 기초한 사회의 協同一致에서 비롯되었다’는 가가와의 주장은 사회주의와 구별된 기독교적 나름의 사회윤리적 표준을 모색하던 기독교인들에게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해 주었고, 맑스주의와 다른 ‘愛의 勞動’, ‘愛의 社會’, ‘愛의 力’ 등이라는 사회윤리적 표준으로 제시되었다.²³⁾

당시 기독교사회운동을 주도하던 신흥우를 비롯한 YMCA 지도그룹은 미국의 라우센부쉬가 주장한 사회복음주의를 수용한 이들이었다. 이들은 기독교 선교사명이 땅끝까지 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인간이 직면한 모든 문제에 대해 증거하는 것이라는 사회복음을 적극 수용하고 나섰다. 특히 ‘정의’와 ‘사랑’으로 이뤄진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실현하는 것이 인생의 최고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파악한 신흥우는 개인의 내세신앙을 강조하는 ‘개인가원’보다 현실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적극적이면서도 현실적으로 인간이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사회구원을 지향하는 ‘사회복음’을 수용하며 이를 체계적으로 주장하였다.²⁴⁾ 이같은 사회복음적 이해는 구체적 삶과 늘 분리될 수 없는 것이었고, 그것은 현실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가는 적극적인 사회개혁이념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YMCA 지도그룹의 사회복음주의 수용은 1925년 시작된 YMCA 농촌사업을 통해 구체화되었다. 일제의 살인적 농업정책으로 자작농의 몰락과 소작농의 급증, 농가부채의 증가 등 전체 인구 80% 이상인 농민들 대부분이 절대빈곤에 빠져 있는 당시 현실에서 이들은 빈민 소작농이 아

23) 대표적인 글은 一記者 譯, 『愛와 勞動』, 『青年』 1925년 4월호; 李建春 譯, 『愛와 社會』, 『青年』 1926년 1월호; 赤城學人 譯, 『基督教社會主義論(一)~(九)』, 基督申報, 1927년 3월 9일~5월 25일자 등이 있다.

24) 김상태, 『일제하 신흥우의 사회복음주의와 민족운동론』, 역사비평사, 『역사문제연구』 창간호, 1996, 174~176.

무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소작농이 밤낮 일해도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고 과약하였다. 그래서 이들은 도시청년에 한정된 다소 공허한 사상운동보다 농민대중의 삶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보았다.²⁵⁾

이와 함께 이들은 국제선교연맹(IMC) 회장 모트(Mott)의 내방을 계기로 열린 ‘국제선교연맹참가준비회’ 곧 조선기독교봉역자회의(朝鮮基督教奉役者會議)를 주도적으로 개최하였다.²⁶⁾ 유물론에 물든 학생과 무산청년들의 도전에 대응할 당면한 사회문제에 대한 기독교의 태도 정립, 시대변화에 따른 실정에 맞는 선교방법의 모색, 선교사와 한국인 교역자의 관계 재설정 등 ‘사회복음’에 입각하여 한국교회가 직면한 실제문제를 해결할 기독교운동의 중요한 방향전환을 이끌어 냈다.

3. 예루살렘 국제선교대회와 기독교의 사회화 문제

1920년대 중반 사회복음의 사조가 대두하면서 사회윤리적 표준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본격화되었다. 1928년 개최된 ‘예루살렘 國際宣敎大會’였다.²⁷⁾ 이 대회는 사회윤리적 표준을 확립하는데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이 대회는 구미국가들의 제국주의적 침략에 편승해 진행된 이전의 세계선교에 대한 반성과 기독교가 세계인의 기독교로 더 이상의 서구인들의 전유물이 아님을 선언하며, 결론적으로 기독교가 사회적이며 윤리적이라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 대회는 1928년 3월 24일부터 4월 8일까지 2주간 예루살렘에서 개최되었다. 총 51개국에서 231명의 대표가 참석한 이 대회에는 피

25) 申興雨, 『農村事業에 就하여』, 『新民』 1925년 5월호, 12~15; 『朝鮮日報 社說을 읽고』, 『青年』 1926년 2월호, 9~11.

26) 『朝鮮基督教奉役者會議』, 조선후편, 1925. 12, 9~10.

27)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한국기독교의 역사 II』(서울: 기독교문사, 1990), 217.

선교지국에서도 대표들이 처음으로 참석했는데, 이들의 수가 기독교 선교국의 참가수와 비교해 적지 않은 것이 가장 큰 특징이었다.²⁸⁾ 한국교회에서도 1925년 ‘조선기독교봉역자의회’(朝鮮基督教奉役者議會)에서 한국대표들을 선출된 신흥우(YMCA)·양주삼(감리교)·정인파(장로교)·김활란(YWCA)·노블(감리교)·마뻬(장로교) 등 모두 6명이 참석하였다.²⁹⁾

예루살렘 국제선교대회는 “天地에 사랑과 平和의 世界를 建設하자는 理想과 예수의 犧牲的 奉仕主義를 模本한다는 基督教國으로 基督教人으로 現代科學知識을 낫낫치 利用하여 서로 殺害하기를 宏壯히 하였단”³⁰⁾ 제1차 세계대전의 뼈아픈 경험에서 비롯되었다. 이것은 세계 기독교인들에게 깊은 자성과 인식의 전환을 가져오는 출발점이 되었다. 이는 거듭되는 선교국과 피선교국간의 갈등, 기독교계 내부의 다툼과 분쟁, 형식에 치우친 교회의 제도와 보수적인 교리해석 등으로는 시대가 요구하는 기독교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철저한 자기반성에 기초한 것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대회에서는 기독교의 사명, 타종교와의 대화, 선교국과 기성교회와 피선교국간의 관계, 종교교육, 산업문제, 인종문제, 농촌문제 등에 관한 폭넓은 안건이 논의되었다.³¹⁾ 예루살렘 대회에서 논의된 안건들은 당시 세계기독교의 흐름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를 한 눈에 보여주었다. 이 대회에 참석했던 한국대표들에게 가장 큰 주목을 받은 것은 농촌문제였다.³²⁾ 특히 이 대회에서는 미국의 사회학자인 브루너(E. S.

28) 鄭仁果, ‘예루살렘代會에 參席하고(三)’, 基督申報, 1928년 6월 20일자.

29) ‘國際宣敎聯盟會에 參席할 朝鮮代表들의 출발’, 基督申報, 1928년 2월 8일자.

30) 金活蘭, 『예루살렘代會와 今後 基督教』, 『青年』 1928년 11월호, 5.

31) 梁柱三, ‘예루살렘會議의 特色’, 基督申報, 1928년 7월 11일자.

32) 정인파, ‘예루살렘대회에 참석하고(三)’, 基督申報, 1928년 6월 20일자.

Brunner)가 식민지 조선 농촌의 경제·사회·종교적 상황을 조사하여 작성한 Rural Korea가 회의보고서로 채택되어 아시아·아프리카의 농촌선교에 대한 토론의 주 대상이 되었던 것에 크게 비롯되었다.

여기에 참석했던 한국대표들은 이 대회를 통해 3·1운동 이후 사회윤리적 표준을 마련하기 위한 그동안의 노력이 세계 기독교의 흐름과 부합되고 있음을 보편적으로 확인하고, 한국에서 전개할 기독교 운동의 방향에 대한 자신감을 더욱 갖게 되었다.

예루살렘 국제선교대회를 참석했던 김활란은 이 대회 주제를 정리했다.³³⁾ 그는 이 대회의 주제가 결론적으로 기독교의 실제화와 사회화의 문제였음을 지적하였다. 한국의 기독교가 “개인구원을 위한 복음뿐이 아니라 일반사회를 구원하는 복음”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이기적 개인윤리와 개인적 구령운동에 치우치고 있는데, 이것의 가장 큰 이유는 기독교의 실제화와 사회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임을 제시했다. 기독교의 실제화와 사회화야말로 ‘사회구원’을 이루는 첩경이 된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한국기독교회가 “장차 세계적 사회문제까지 불간섭주의를 가지고 방관할 것이 아니라 맹렬하게 나서서 권장할 것은 권장하고 반항할 것은 반항할 것이니 즉 기독교를 개인에 있어서 단체에 있어서 사회화와 실제화한다는 것이다”라고 하여, 한국기독교회가 나아갈 방향이 기독교의 ‘실제화’와 ‘사회화’에 있음을 지적했다. 이 대회를 통해 한국교회는 세계기독교의 일사조인 ‘사회복음주의’를 적극 수용, 확립하고 한국기독교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1928년 예루살렘대회는 기독교계의 사회문제에 대한 시각을 전환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들은 기독교의 ‘사회화’라는 차원에서 농촌과 농민의 중요성을 더욱 자각하고 국내에 돌아와 언론에 예루살

33) 金活蘭, 위의 글, 2~5.

렘대회에 대한 소감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또 이것이 자극이 되어 양주삼·김활란 등은 당시 농촌사업에 성공을 거두고 있던 정말(丁抹, 덴마크)을 방문했다. 이 방문은 농촌운동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후의 농촌운동에 대한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³⁴⁾

그리하여 1928년 예루살렘 국제선교대회를 계기로 확인된 기독교의 사회화는 한국최대 교세를 지닌 장로교와 감리교, 그리고 YWCA에 농촌부의 설치로 현실화되었다. 이는 그동안의 기독교 사회운동이 YMCA나 YWCA 등 기독교 청년기관이나 사회기관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반해 이후 최대교세를 지닌 제도권 교회가 거리를 두고 있던 사회문제에 적극 나섰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을 것이다.

III. 한국교회의 사회복음 실천과 사회윤리 확립

1. 기독교신우회 선언과 사회복음 실천론

1928년 예루살렘대회의 영향은 1929년 5월 출범한 기독교신우회(基督信友會)를 통해 보다 구체화되었다.³⁵⁾ 모두 89명의 저명한 기독교 민족·사회운동가들이 거의 총망라하여 서명한 선언을 통해 기독교신우회는 사회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을 주장했다.

이 단체는 1928년 조병옥의 혁신운동에 동조하는 중앙 YMCA회원과 기독교계 청년·학생 약 60여명을 규합하여 비밀결사체로 조직된 ‘기독교신우회’라는 청년단체가 그 모체가 되었다. 조병옥이 예루살렘대회를 다녀온 후 정인파와 함께 기독교 민족·사회운동가를 총망라하여 결성한

34) 양주삼, ‘農民의樂園인 丁抹’, 基督申報, 1928년 11월 7일자.

35) 김권정, 「1920년대 후반 기독교세력의 반기독교운동 대응과 민족운동의 전개」, 『한국기독교와 역사』 제14호, 2001, 100~102.

것이다.³⁶⁾ 예루살렘 국제선교대회 이후 한국교회에 확산되는 사회복음의 분위기 속에서 기독교 민족·사회운동가들은 기독교의 보수적인 개인주의와 사회주의자의 유물론에 맞서 사회복음주의를 기초로 사회윤리적 표준과 활동의 지침을 마련하고 ‘혁신적’ 기독교운동을 전개하고자 하였다.³⁷⁾ 다음은 기독교신우회 선언의 일부분이다.³⁸⁾

우리는 基督主義의 眞正한 見解를 가지고자 한다. 基督教人の 多數는 贖罪 救靈의 個人福音主義만에 置重하고 人間天國의 建設로서야 生靈의 救活을 完全히 達케 하는 社會福音主義를 輕視하여 왔다.…… 우리는 基督의 社會福音主義를 中興식히려 한다.…… 大我의 救活로서 小我의 活路를 개척코자 한다.…… 아모스 先知와 갖치 하나님피 燔祭와 讚頌을 드리기 前에 먼저 人間社會에 正義와 公道가 江과 갖치 흐르도록 함이 우리의 精神이다. 基督教의 民衆化, 基督主義의 實際化가 우리 個體의 生命을 救하고 全朝鮮 民族을 救할 수 있다는 우리는 基督主義의 旗幟하에 十字架를 등에 지기로 公約하고……

위에서 보듯이, “전세계 기독교도의 당면한 문제는 기독교의 신앙상 동력을 사회세력으로 화하여 이것을 인간생활 전체의 문제의 해결에 공함에 있다”로 시작한 기독교신우회 선언문의 핵심은 기독교의 ‘민중화’와 ‘실제화’였다.

이것은 기독교신자의 단결, 천국건설, 사회죄악의 제거, 사회복음주의의 중흥을 표방하였다. 먼저 기독교신우회 발기인들은 훈련의 준수, 주의(主義)의 정시(正視), 성령의 감화를 통해 기독교신자의 단결을 이루어 기독교 신앙동력을 사회세력화할 것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는 속죄구령과 함께

36) 趙炳玉, 『나의 回顧錄』(서울: 民敎社, 1959), 93~95.

37) 社說, ‘基督敎勢力의 動力’, 基督申報, 1929년 6월 12일자.

38) ‘基督信友會 宣言’, 基督申報, 1929년 6월 12일자.

예수의 사회복음주의를 중흥시켜 기독교주의를 민중화하고 실제화할 것을 주장했으며, 끝으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예수의 가르침대로 30만 기독교신자의 적극적 동참을 역설하였다.

기독신우회 선언의 내용은 예루살렘 국제선교대회에서 중요하게 제기된 이념과 동일할 뿐만 아니라 3·1운동 이후 줄곧 기독교계가 모색해왔던 사회윤리적 표준의 방향과 부합하는 것으로 기독교가 성취해야 할 과제들이었다.

이를 위해 기독신우회는 3가지 측면에서 노력할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먼저 현 사회에 대한 의식과 각오를 절실히 가진 참된 신앙심이 있는 조선기독교청년을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모으기에 힘쓰고, 다음으로 그리스도의 주된 주의와 정신을 생활에 실제화 하도록 힘쓰며, 끝으로 청년 중에 교회에 대해 불평을 품고 나가는 이들을 붙들여 참 기독교인이 되도록 하는 일에 힘쓸 것 등을 목표로 삼았다.³⁹⁾ 이는 민중의 생활개선과 행복에 걸림돌이 되는 사회악 일체를 제거하고 기독교의 사회윤리적 책임에 자각이 없는 기독교청년들을 각성시켜 의식화하는데 사업의 중점을 두었다.

기독신우회의 출범은 기독교계 대내외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며, 대대적인 환영을 받았다. 기독교계의 대표적 신문인 기독교신보는 기독신우회의 결성을 “그리스도주의를 실제화하여 죄악의 세상을 폐하여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 한다”고 평가하고, “조선의 그리스도신자들의 시대에 순응하여 마땅히 행할 절실한 운동이다”라고 하여, 기독신우회의 앞길을 축하했다. 일반 신문인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에서도 기독신우회에 대해 기독교인들의 “民族的 一力量”의 구성하는 “前衛的 結成”⁴⁰⁾ 또는

39) ‘종교단체의 신년포부(기독신우회)’, 基督申報, 1930년 1월 1일자.

40) ‘朝鮮基督教의 使命’, 東亞日報, 1929년 6월 5일자.

“前衛的 運動”⁴¹⁾이라고 극찬했다.

이처럼 1920년대 후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세계기독교와의 국제적 연대를 통한 각성되었다. 이는 정치·사회의식의 자각을 배경으로 3·1운동 이후 지속된 기독교계의 사회윤리적 표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노력이 예루살렘 국제선교대회 직후 기독신우회의 선언과 결성을 통해 그 전기를 마련한 것이다.

2. 조선예수교연합공의회의 사회신조

한국교회에는 예루살렘 국제선교대회의 결의들을 구체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국제선교연맹(IMC) 회장 모트의 재차 방문을 계기로 1929년 4월 조선예수교연합공의회 임시대회가 개최되었다.⁴²⁾ 이것은 예루살렘대회의 연장선상에서 ‘조선사람의 행복과 조선사람의 감정과 생활을 위한 전도’, ‘현대 조선사람을 진실노 만족케 할 만한 전도’를 위한 성안과 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본격적인 첫 모임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

기독교 각 단체 대표 100명이 모인 임시대회에서는 ‘금일 조선교회의 생활과 사업중에 치중할 요점’, ‘조선교회에 필요한 인도자의 모집과 양성’ 및 ‘계속근무 문제에 대하여’, ‘조선교회의 재원을 증진’, ‘정신상 단합과 사업상 협동’ 등 4개 분과에 걸친 토론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영적방면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으나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하는 것이 현재 조선교회의 급선무라는 데 같은 인식을 하고, 8개항에 걸친 기독교 경제운동의 실천방침을 제안하였다.⁴³⁾ 이어서 조선예수교연

41) ‘基督教信友會’, 朝鮮日報, 1929년 6월 3일자.

42) 社說, ‘聯合公議會 臨時大會에 臨하야’, 基督申報, 1929년 4월 17일자.

43) ‘朝鮮耶蘇教聯合公議會 後報(一)’, 基督申報, 1929년 4월 24일자.

합공의회를 중심으로 교회와 사회의 일반현상을 조사하며, 사회적 악풍을 제거하고, IMC와의 국제적 연대 속에서 기독교의 새로운 표준을 선명히 하기 위한 ‘정신상 단합과 사업상 협동’을 결의하였다. 이를 위해 같은 해 9월에는 YMCA YWCA 장로회·남북감리회·각 선교부·연합공의회 농촌사업 협동기관을 결성된 ‘농촌사업협동위원회’(農村事業協同委員會)가 설치되기도 하였다.⁴⁴⁾

이와 같은 사회복음의 수용과 사회윤리적 표준 확립을 위한 노력은 1930년대에 들어 ‘사회신조’(社會信條)라는 결과로 나타났다. 이것은 3·1운동 이후 그동안의 전개된 기독교 사회운동을 총정리하는 종합적 성격과 동시에 사회윤리적 표준을 구체적으로 확립하는 성격을 띠고 있었다. 다음은 조선예수교연합공회가 1932년 9월에 채택한 사회신조의 내용 일부분이다.⁴⁵⁾

우리는 하나님을 부모, 人類를 兄弟로 信하며, 基督을 通하여 啓示된 하나님의 愛와 正義와 平和가 社會의 基礎的 理想으로 思하는 同時에 一切의 唯物 教育, 唯物 思想, 階級的 鬪爭, 革命 手段에 의한 社會 改造와 反動的 彈壓에 反對하고 進히야 基督教 傳道와 教育 及 社會 事業을 擴張하여 基督贖罪의 恩赦를 받고 更生된 人格者로 社會의 中堅이 되어 社會組織體 中에 基督 精神이 活躍케 하고 모든 財産은 神께로 받은 受託物로 알아 神과 人을 爲하여 貢獻할 것으로 信하는 者이다.

사회신조에는 당시 한국사회의 다양한 현실문제들에 대한 지침 또는 방향으로 사회윤리적 표준을 제시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

44) 한규무, 『일제하 한국기독교 농촌운동』(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7), 57~91 참조.

45) 『朝鮮耶蘇敎聯合公議會 第九回 會錄』(京城: 朝鮮耶蘇敎聯合公議會, 1932), 52.

었다. 이외에도 모두 12개항의 구체적 내용을 제시했는데, 인간의 평등·남녀의 평등·여자의 지위개선·혼인정조의 신성성, 아동의 인격존중·공사창폐지·노동자문제·최저임금법·소작법·사회보상법의 제정 등이 거론되어 있었다.

이것은 사회적 선교사명을 강조하는 에큐메니칼 운동과의 국제적 연대 속에서 개인윤리를 기초로 하는 개인적 복음주의에서 벗어나 청지기적 사명감을 재확인하고, 당시의 사회주의사상에 대한 대응적 성격을 띠며 반유물론적 입장을 분명히 정립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⁴⁶⁾ 이를 통해 한국교회의 사회윤리적 표준을 확립했다는 뚜렷하게 보여주었음을 잘 보여 준다.

이처럼 사회신조는 한국교회가 구체적인 사회문제에 대한 기독교의 입장을 표명했다는 점에서 그 가치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때는 세계대공황의 영향(1928)과 일제의 만주침략(1931), 사회주의자들의 반기독교운동의 재개, 농민층의 열악한 경제상황 등이 더욱 첨예하게 나타나던 시대였다.⁴⁷⁾ 이런 상황에서 조선예수교연합공의회가 종래의 단순한 교회연합협의체에서 벗어나 농촌문제, 절제운동, 사회구제 등의 활동에 한국교회 전체가 독자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회윤리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이 사회신조가 갖는 의미는 크다고 볼 수 있다.

3. 1930년대 사회복음의 실천적 흐름

1930년대 한국교회에는 다양한 사회복음의 실천적 흐름이 등장하였다. 이 시기에는 세계적 대공황의 영향과 농업공황까지 겹친 상태에서 한국

46) 이만열, 「한말·일제하 기독교 사회운동의 맥락」, 『한국기독교와 민족의식』(서울: 지식산업사, 1991), 367~368.

47) 김권정, 「1930년대 전반 기독교 민족운동의 동향과 성격」, 『한국민족운동사연구』 50(2007), 167~174.

민 절대 다수가 농촌에 거주하는 농민층이었던 관계로 1920년대 중반에 시작된 농촌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그것은 농촌사회의 몰락과 농민의 피폐화는 곧 민족 장래의 어두운 전망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이다.⁴⁸⁾ 특히 1928년 예루살렘 국제선교대회이후 제도권 교회 차원에서도 농촌문제에 대해 직접적인 관심을 갖고 농촌운동에 나섰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의욕적으로 펼치던 농촌운동은 1932년에 들어 큰 어려움에 직면하였다. 그것은 공황의 여파로 곤경에 처한 농촌사회와 농민층은 일제의 수탈적 농촌정책에 거세게 반발하였고, 이를 틈타 사회주의세력이 농촌지역에 크게 확산되며 혁명적 농민조합운동이 전개되었다. 이를 식민지배체제의 위협으로 간주한 일제는 농촌경제를 안정시키고 나아가 대륙침략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농촌진흥운동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교회의 농촌운동은 일제의 간섭과 탄압을 받게 되었고, 점점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⁴⁹⁾

이런 상황에서 1930년대 전반 한국교회의 농촌운동을 적극 추진한 것은 장로교 농촌부였다. 1933년 농촌부 총무로 부임한 배민수는 박학전·유재기·김성원 등과 함께 사회복음주의 실천적 관점에서 의욕적으로 이를 전개했다.⁵⁰⁾ 이들은 기존의 농촌운동이 현실 경제문제에 매몰되어 복음의 정신에서 멀어졌다고 비판하고, 경제운동이전에 영적이며 정신운동, 즉 사회윤리운동임을 강조했다. 이들은 1933년 고등농사학원의 설치와 함께 복음 정신에 입각한 ‘예수촌 건설’을 표방하며 농촌운동을 펼쳐 나갔다.⁵¹⁾ 이 운동은 그런 의미에서 농촌복음화운동인 동시에 농촌재건을

48) 홍병선, 「농촌사업과 기독교청년회」, 『東光』 1931년 4월호, 39.

49) 김권정, 『1930년대 전반 기독교 민족운동의 동향과 성격』, 196.

50) 한규무, 앞의 책, 71~81.

51) 1930년대 배민수의 그룹이 추진했던 예수촌건설운동에 대해서는 방기중, 『배민수의 농촌운동과 기독교사상』(서울: 연세대 출판부, 1999)을 참조할 것.

위한 경제윤리 및 실천운동이었다.

또한 1920년대 실시되었던 절제운동은 1930년대 한국교회가 대표적으로 추진한 사회복음운동이었다.⁵²⁾ 1932년 남녀 중심의 조선기독교절제회가 창립됨으로써 그동안 여성중심으로 진행되던 절제운동이 한국교회 전체의 호응 아래 추진되게 되었다. 1920년대 후반 일본 독점자본이 후반부터 대거 한국에 진출하면서 급속한 도시화가 진행되었고, 일본은 퇴폐문화가 확대·재생산하여 한국사회의 문화적 침탈현상을 일으켰다. 이에 대응하는 절제운동은 단순히 ‘고상한’ 의식운동이 아니라 사회윤리적 관점에서 ‘육을 살리고 영을 살리는 운동’으로 죽어가는 조선을 살리는 운동이었다.⁵³⁾ 이는 침체된 농촌운동의 대안운동인 동시에 사회윤리적 표준에 따른 복음의 실천적 운동이었다.

이외에도 1930년대 전반 농촌사업의 위축, 교회·교파간의 갈등과 신학의 보수화, 교인들의 신앙 형식화와 현실유리의 현상이 심화되며, 기독교 청년들의 교회를 이탈해가는 상황에서 사회주의자들의 반기독교운동에 대한 대응의 성격에 띤 적극신앙운동(積極信仰運動)이 펼쳐졌다. 이는 1920년대 중반 이래 한국기독교계에 형성되었던 전횡순·최석주의 기독교 신보 그룹과 신흥우를 비롯한 YMCA 그룹이 ‘적극적 사회복음 실천’이란 차원에서 추진되었다.⁵⁴⁾

이 운동은 ‘기독교 개혁’을 통해 궁극적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을 지향하면서 5개학과 21개조의 생활실천강령을 내용으로 하는 ‘적극신앙선언’을 주장하였다. 이를 통해 이들은 한국기독교 개혁의 방향을 밝히고 적극적 사회복음주의를 통한 지상천국건설론, 적극적 복음 실천론을 주

52) 윤은순, 「1920·30년대 한국기독교의 절제운동」, 『한국기독교와 역사』 16호, 2002 참조할 것.

53) 손메레, ‘朝鮮의 禁酒運動’, 基督申報, 1930년 4월 30일자.

54) 김권경, 「1930년대 전반 적극신앙운동에 관한 연구」, 『한국민족운동사연구』 35, 2003, 87~91.

장하고자 하였다.⁵⁵⁾ 개혁적인 선교사들과 교회 목사 및 전도사들, 교회의 지도자들을 만나 적극신앙운동을 설명하고, 특별히 기독교청년층을 대상으로 하여, 사회윤리의식의 고취와 사회복음의 실천을 강조 이를 훈련하여 한국교회의 개혁을 지향하도록 했다.

이렇게 전개된 적극신앙운동은 기독교계의 높은 보수주의와 지역주의 갈등을 넘어서지 못하고 그 대중적 조직력을 끌어내지 못한 채 1930년대 중반 막을 내리고 말았다. 그러나 적극신앙운동은 3·1운동이후 지속된 사회복음의 논리를 더욱 체계화하였고, 특히 1928년 예루살렘국제선교대회 이후 정립된 사회윤리적 표준을 토대로 한국교회의 사회복음의 실천을 실제로 전개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을 것이다.

IV. 맺음말

19세기말 이 땅에 수용된 기독교는 당시 동요하던 한국사회에 시대적 과제인 반봉건 및 사회개혁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는 서구열강의 침략에 맞서며 근대적 사회체제를 지향하던 많은 한국인들에게 대대적인 환영을 받았다. 이후 일제의 압박에서 벗어나 민족의 해방을 가져올 뿐 아니라 신문물의 도입과 함께 민족공동체의 번영을 꾀할 수 있는 통로로 받아들여졌다. 또 기독교는 한국민주주의의 발전에 나름대로 적지 않은 공헌을 했다.

그러던 것이 1970·80년대 급속한 성장과 더불어 한국교회의 사회적 부작용이 표면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사회적으로 부각된 사건들에 연루된 기독교인들이 대거 연루되고, 이에 대한 비판과 자성보다는 남 탓으로 돌리는 태도가 만연되어 있다. 이와 함께 1990년대에 들어 교세 정

55) ‘積極信仰團에 對하여’, 基督申報, 1935년 2월 20일자.

체현상이 나타나나 최근에는 감소현상까지 보이고 있다. 많은 원인이 있을 수 있으나, 오늘 한국교회가 한국사회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원인임을 지적할 수 있으며, 이것은 한국교회가 사회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에서 그 책임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깊은 관계가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한국교회는 1920~30년대 한국교회가 시대적 도전에 대해 확립한 태도를 통해 깊은 사회윤리적 통찰력을 가져야 할 것이다. 사회문제에 거리를 둔 채 소극적 삶을 일관하는 개인복음주의 흐름과 유물론과 무신론을 앞세우며 기독교를 배척하고자 했던 사회주의자들의 반기독교운동에 맞서 사회적 문제에 대한 사회윤리적 표준을 한국기독교 전체에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시대와 소통하고자 했던 노력을 배워야 할 것이다. 단지 배우고 느끼는데 그치지 말고 오늘 한국교회는 시대 속에서 자기존재의 위상을 새롭게 발견하며 이를 재정립하고 이를 한국교회 전체에 제시해야 할 ‘용기’가 그 어떤 때보다 요구된다.

참고문헌

- 강명숙. 「1920년대 초 한국 개신교에 대한 사회의 비판」,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한국기독교와 역사』 제5호, 1996.
- 김권정. 「일제하 사회주의자들의 반기독교운동」, 『崇實史學』 제10집, 1997.
- _____. 「1920~30년대 기독교인들의 사회주의 인식」, 『한국기독교와 역사』 제5호, 1996.
- _____. 「1920년대 후반 기독교세력의 반기독교운동 대응과 민족운동의 전개」, 『한국기독교와 역사』 제14호, 2001.
- _____. 「1930년대 전반 적극신앙운동에 관한 연구」, 『한국민족운동사연구』 35, 2003.
- _____. 「1930년대 전반 기독교 민족운동의 동향과 성격」, 『한국민족운동사연구』 50, 2007.
- 김상태. 「일제하 신흥우의 사회복음주의와 민족운동론」, 『역사문제연구』 창간호. 서울: 역사비평사, 1996.
- 박정신. 「1920년대 개신교 지도층과 민족주의운동」, 『근대한국과 기독교』. 서울: 민영사, 1997.
- 박찬승. 『한국근대정치사상연구』. 서울: 역사비평사, 1992.
- 방기중. 『배민수의 농촌운동과 기독교사상』. 서울: 연세대 출판부, 1999.
- 윤은순. 「1920·30년대 한국기독교의 절제운동」, 『한국기독교와 역사』 16호, 2002.
- 이만열. 「한말·일제하 기독교 사회운동의 맥락」, 『한국기독교와 민족의식』. 서울: 지식산업사, 1991.
- 장규식. 「신간회운동기 기독교의 사회운동론의 대두와 기독교신학회」, 『한국근현대사연구』 16. 한국근현대사학회, 2001.
- 趙炳玉. 『나의 回顧錄』. 서울: 民敎社, 1959.
- 채현석. 「이대위의 생애와 활동」, 『일제하 한국기독교와 사회주의』.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2.
-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한국기독교의 역사Ⅱ』. 서울: 기독교문사, 1990.
- 한규무. 『일제하 한국기독교 농촌운동』.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7.

신문: 東亞日報; 朝鮮日報; 基督申報

잡지: 開闢; 靑年; 新生活; 現代評論, 新民; 東光

기타: 『朝鮮耶蘇教聯合公議會 第九回 會錄』(京城: 朝鮮耶蘇教聯合公議會, 1932);
『百牧講演』2(경성: 博文書館, 1921)

논문접수일: 2008. 10. 30

심사개시일: 2008. 11. 12

심사완료일: 2008. 11. 22